

# 어린이집 CCTV 너무 넓었다

### 광주·전남 10개 중 8개 설치 5년 지나 기능상실 우려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발견에 중요...제도 개선 필요”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85%가 5년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086개 중 81.3%인 2만8526개가 5년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 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집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체 1003개의 CCTV 중 2015년 설치가 832개, 2016년 21개 등 총 853개로 5년전 설치 비

율이 85%를 차지했다. 2017년 26개, 2018년 14개, 2019년 33개, 2019년 52개, 올해 25개가 신규 설치됐다.

전남은 1052개의 CCTV 중 2015년 852개, 2016년 48개로 5년전에 설치된 CCTV가 총 900개(85.5%)이다. 2017년 25개, 2018년 27개, 2019년 35개, 지난해 33개, 올해 32개가 설치됐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어린이집 CCTV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CCTV 설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고의로 고장 상태로 두는 경우도 있다”며 “CCTV는 아동학대 입증의 중요한 증거인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매년 1회 이상 CCTV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한 CCTV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CCTV 내구연한과 점검·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활용도를 극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전남서도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

### 대규모 집회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20일 열릴 예정이라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과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광주에서는 학교 비정규직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 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 택배노조, 흡플리스 노조 기타 등 16개 산별노조들은 이날 총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부문별로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광주시청 앞에서 열릴 총파업 대회에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청 앞에서도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 4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을 비롯, 경찰청은 집회참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고된 인원을 초과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경찰청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예정된 데 따라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치명동 한국은행 사거리-광주시청 사거리까지 양방향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 조합원에게 총파업 방역지침을 전달,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뒤에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무단방치 견인

### 광주시 내년부터

내년부터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하거나 무단 방치하면 견인된다.

광주시는 19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과 보행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수차례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

다. 지난 18일 관련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단속이 가능해졌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30분, 그 외 인원 발생 후 2시간 내 미조치 시 견인 조치하고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 경찰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시민이 불법과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 운행 시 형광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수창초 앞 육교’ 충돌사고로 긴급 철거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수창초등학교 앞 육교를 긴급 철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북구청은 지난 18일 집게차 충돌사고로 육교가 파손되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 육교를 긴급 철거하기로 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크레인차 충돌에 붕괴 우려...금남로 5가~유동사거리 전면 통제

48년 전 지어진 광주시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앞 육교(1972년 12월 29일 설치)가 20일부터 철거된다.

19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께 지나가던 크레인(집게차) 차량이 육교

아랫부분에 충돌해, 긴급안전진단 결과 추가붕괴 우려가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오후 국토안전관리원 입회하에 진행된 긴급 안전진단 결과 육교 하부의 하중을 견디는

‘거더’(Beam)가 절반이상 파괴돼 기능이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구는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 또는 2차 충돌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육교를 밀어 지나는 왕복 6차로 도로(금남로 5가~유동사거리)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철거를 결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동 수 감소에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논란

###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취원 아동수 감소로 추진하는 병설 유치원 통폐합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병설 유치원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부모 4명은 1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해 줄이는 것은 그 지역 공교육의 부재에서 나

아가 공교육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전체 병설 유치원 124곳 중 12곳을 골라 4곳으로 통폐합하는 등 2025년까지 92곳을 선택해 36곳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광주지역 신생아가 매년 1000명 가량 감소하면서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병설 유치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채플 강제’ 광주보건대, 이수 요건 완화...인권위 “미흡”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광주보건대학교의 조치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인권위가 예배 형식의 채플(경건회) 수업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삼은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광주보건대는 채플을 졸업 필수 요건에서 해제하거나 대체 과목 신설 등 대책 없이 채플 수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지침을 일부 개선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보건대는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던 채플 수업 10회를 예배 형식 3회, 여러 주제의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전의 상황보다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확대한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채플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maritz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MG | Mezzobianca | | 한미약품 | KCB | DB | S | AIG | | KOREAN | | Carrot